

“수산물 불법 어획 꼼짝마” 중국 어선 특별 단속 작전

목포해경,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서 단속 나서



목포해경이 지난달 29일 오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주변 해상 대한민국측 배타적 경제수역 위에서 불법 어업이 의심되는 중국 어선을 발견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잠시 후 등선해서 검문 검색 예정이니 협조 바랍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지며 불어다친 매서운 바닷바람에 높이 3m에 이르는 파도가 친 지난 달 30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주변 해상.

불법 조업을 의심되는 149t급 중국 어선 한 척이 대한민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는 이곳에 떠있자 목포해경이 즉각 사이렌을 울렸다. 10인승 경비단정을 이용해 중국 어선에 접근한 해경은 경비단정 선수를 어선 선체에 바짝 붙였다. 해경은 신속하게 어선 위로 올라 조타실, 갑판 등지에서 작전 위치를 확보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중무장한 해경은 선원을 전부 갑판 위로 모이게 하고 선장을 조타실에 격리했다. 작전에 돌입한 해경은 등선 3분 만에 어선을 확보하고 채증에 나섰다.

해경은 최우선 단속 목표인 어획물 보관창고의 위치를 찾기 시작했다. 신고한 개체수를 넘는 어획량이 발견될 경우 해당 중국 어선은 곧장 나포 대상에 오른다.

해경은 비좁은 통로를 거쳐 선체 최하단

부에 자리잡은 창고로 대원들을 들여보내는 동시에 조타실 수색 작업을 벌이며 조업 위치를 찾았다. 어획물 보관 창고에는 신고량만큼의 어획물이 있었으나 문제는 조업 위치에서 확인됐다. 매일 자세한 어획량을 기재해야 하는 조업 일지에 지난 4월 진행된 조업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것이다.

해경은 즉각 이 어선을 나포하기로 결정. 조업 일지 미기재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곳 선장 A(36)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비함정에서 이뤄진 해경 조사 과정에서 조업 일지 미기재 등에 대해 ‘해당 쪽 수를 쥐가 파먹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업 일지에는 쥐가 파먹어 훼손됐다고 주장한 부분 이외에도 조업의 연속성이 입증될 만큼의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거짓말이 쉽게 들렸다.

이밖에 A씨는 해경 단속 당시 조업 일지가 없으며 이를 숨기고 있다가 수색 끝에 덩미를 잡히기도 했다.

A씨 선박은 해경에 담보금 4000만 원을 낸 뒤에야 나포 상태에서 풀려났다. 해경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경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벌이는 불법 조업을 적발하고자 특별 단속을 벌였다.

일부 중국 어선이 합법적인 어획 신고 절차를 악용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 이후 불법 조업을 일삼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하면서다. 중국 어선들이 이곳에서 저지르는 불법 행위는 신고량을 초과한 어획량을 숨기기 위해 조업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관련한 단속 건수도 줄을 잇는다. 해경은 올 한해 중국 어선 525척을 검문 검색, 이중 46척을 관련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불법 조업이 성행하는 10월에만 1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최근에는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불법 어구인 범장망을 설치하면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중에 설치하는 범장망은 좁은 그물코와 250m에 달하는 넓이로 해류를 따라 헤엄치는 물고기를 씹을 이해 우리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다.

목포해경은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사이 해역에 범장망 50여척이 모인 곳을 발견, 이를 수거하기 위해 진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작전도 진행 중이다. 동시에 민간 어선과 함께 범장망 제거 작업에도 나선다.

김경훈 목포해경 3015함 특수기동대검색팀장은 “중국 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경계선상에서 아간에 치고 빠지는 수법을 쓰면서 교란시키고 있다. 해경은 항공기를 투입한 상공채증, 함정을 이용한 추적 단속 등 입체적으로 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 주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안=이명주 기자

광주시, 고액채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나선다

채권확보 어려운 3000만 원 이상 채납자 대상…“징수 위해 모든 역량 동원”

광주시가 고액채납자들을 상대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3일 시에 따르면 고액채납자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이다.

대상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채납자 중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채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다.

시가 지난 7월부터 이달 말까지 출국금지만 고액채납자는 모두 13명이다.

시는 지난 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채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채납자 230명의 명단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도 했다.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07명(법인 76·개인 131)에 채납액은 86억 원, 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23명(법인 7·개인 16)에 채납액은 18억 원에 이른다.

개인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체를 운영해 온 A씨가 지방소득세 등 6건에 12억3000만 원을 채납해 가장 많았으며, 법인은 제조업체인 S산업이 취득세 등 3건에 2억1000만 원으로 채납액이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해 출국금지·가택수색·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채납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채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수권 기자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겨울 비수기는 없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이 겨울 비수기를 잇은 채 각종 모터스포츠 대회로 활기가 넘쳐날 전망이다.

전남도는 국제자동차경주장 동계시즌 스포츠주행 프로그램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1월 평균 서킷 노면 온도가 2.4도 유지하고 있어서 국내 동계주행 훈련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매년 평균 50여 일간 연인원 2500여 명이 영암 서킷을 방문해 모터스포츠 저변 인구 확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1회 20분, 하루

12월부터 4개월간 동계시즌 스포츠 주행 프로그램 운영

수도권 등 연인원 2500여명 방문…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3주간에 걸쳐 연인원 2700여명이 동계시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자 90% 이상이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경주장을 방문해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화~목요일엔 F1코스를 주행하는 선수와 동호인들에게 단체임대가 이뤄진다. 금요일과 주말엔 서킷 라이선스를 소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1주권과 1일권을 판매한다.

상설서킷 1바퀴(랩타임)를 주행하는 시간에

최대 100분(5회) 주행이 가능하다.

1일권은 판매 수량 600매 중 할인된 금액으로 사전 판매한 100매가 완판되는 등 동계주행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주행권은 국제자동차경주장 누리집(www.koreacircuit.kr)이나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3~2024 동계 시즌 스포츠 주행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 매주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KIC사업단(061-288-4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